

부산에도 불교대학원대학 선다

원효학림 동양학과·기업학과 등 4개과 설치



원효학림 기공식이 8일 김용태 설립추진위원장, 정관(영주암 조실), 정각(미룡사 주지)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원효스님의 화쟁 사상을 교육의 중심으로 하는 불교대학원대학(설립추진위원장 김용태 前신라대 총장)이 부산 금곡동에 들어선다. 8일 기공식을 갖고 첫 삽을 뜬 원

효학림은 불교적 사상을 근간으로 한 교육 연구 시설로 대지 2000평에 건평 1570평 규모로 문을 열 예정이다. 부산의 인재 양성, 불교 사상 저변 확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원

효학림은 연내 건물을 완공하면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동양학과, 심리치료학과, 사회체육지도자학과, 기업학과 등을 개설하게 된다.

법당, 2층 100평 규모의 수련실과 요사채를 겸한 관리동으로 모양을 갖추게 된다. 원효학림에 개설되는 학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학문에 접목시킨 것으로 심리치료학과와, 불교 문화와 예술 등을 심리치료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기업학과는 기업의 의뢰를 받아 진행하는 특수학과로 회사에서 교육을 의뢰하는 기업의 우수 인재들의 심성을 개발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겸비한 인재로 재교육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2003년대 건물을 완공하고 2004년 신학기부터 신입

교육동·법당·수련실·요사채겸 관리동

연내 완공,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 계획

정관 영주암 조실, 정각 미룡사 주지, 엄영석 동아대 총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공식에서 정관스님은 축사를 통해 “원효학림을 시발로 불교사상이 교육, 사회, 문화 전반에 폭넓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 불사에 돌입한 원효학림은 3층 300평 규모의 교육동, 2층 200평 규모의

생을 모집에 들어간다. 김용태 박사는 “불교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퍼는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대대는 지식이 부족하지는 않다. 다만 지혜가 부족해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 것에 착안,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사회에 실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둔 교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nia.com

미안마 정부 부산불자 초청

“삼광사 도원 주지스님을 비롯한 여러 불자들이 베풀어준 따뜻한 정에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부산을 잊지 못하게 만들어준 여러분들을 미안마 양곤에서 다시 만나 뵙길 바랍니다.”

3일 삼광사 주지 도원스님 앞에서 미안마 정부가 보낸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미안마 정부가

지난해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때 미안마대표팀을 응원한 삼광사 서포터즈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초청의 뜻을 전달해 온 것이

“아시아게임 때 따뜻한 응원 감사 삼광사 서포터즈에 보답하고자”

다. 부산아시아게임 당시 미안마 대표팀 단장으로 부산을 찾았던 푸라 에이 민트(Thura Aye Myint) 미안마 체육부 장관은 3일 보내

은 감사장에서 ‘아시아게임 기간 중 서포터즈의 환대에 깊이 감사하며 그 따뜻한 정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며 ‘초청에 꼭 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광사 중심의 미안마 시민서포터즈는 3월중 성지순례단 성격의 방문단을 구성해 미안마의 초청을 수락하고 양국의 민간 교류를 지속할 방침이다.

천미희기자

대구불교사회복지회는 최근 정부지원과 후원자들의 후원금에만 기대왔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고, 수익사업을 통한 복지사업기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불교사회복지회는 지난 9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108사찰순례단을 모태로 하는 108문화센터를 올 초 개원하고 108사찰 순례단, 108기도 순례단, 해외성지 순례단의 여행사업을 통한 각종 수익사업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수

108문화센터·해외성지 순례 사업

수익금 복지사업에 활용

대구불교사회복지회

익모델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불교사회복지회는 또, 108문화센터 내에 천연 황토로 염색한 의류 및 소품류를 판매하는 황기모아 남대구대리점을 복지회에서 직영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복지사업 후 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불교사회복지회는 이외에도 지난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사회시니어클럽에 지정받은 대구햇빛시니어클럽에서 노인들의 사회활동과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햇빛촌 떡방을 비롯 족·국·밀반찬 등을 생산해 판매하는 햇빛장터사업단도 운영하고 있다.

박원구기자

통도사 박물관대학 오세요

불교문화학과 3월 7일 개강

통도사박물관대학은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2003년 박물관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역사학 고고학 미술사학 민족학 불교미술 등 분야별 전문 강의 이론 강의와 현장답사로 진행

되는 통도사박물관대학 불교문화학과는 매주 금요일 강의를 진행한다. 개강은 3월 7일. 055)382-1001.

팔공산 자락 환성사에

최대 돌기둥 일주문 복원

국내 최대규모의 돌기둥 일주문이 복원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예산 2억 5천만원을 투입해 경산시 하양읍 환성사(주지 돈관)의 돌기둥 일주문을 연내 복원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현재 환성사의 일주문은 자연석 초석 위에 4개의 기둥만 남아 있으며, 기둥의 둘레가 240cm, 높이 280cm로 건립 당시에는 높이 5m에 폭 10m의 국내 최대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박원구기자

불교문화재 관련 예산

경북 늘고 대구는 줄어

경북도와 대구시가 최근 밝힌 불교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에 대한 예산 증감이 명확한 대비를 보였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의근)는 2003년 도내 전통사찰 정비계획에서 영천포교당, 경산 제석사

그러나 대구시(시장 조해녕)의 경우 지난해 6개소 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데 반해 올해는 4개소에 6억여 원의 예산만이 책정돼 있어, 경북도와는 반대로 예산 규모 면에서 전년대비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전년비 배 이상 증가 대구 절반가량 감소

등을 비롯한 21개 사찰에 23억여 원을 투자하는 전통사찰 정비계획을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통사찰 보수에 쓰인 예산이 10개 사찰 9억여원이었음에 비해 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올 한해 경북도가 불교문화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입증했다.

그러나 전통사찰보존법에 적용을 받는 현풍포교당 보수사업만이 문화관광부의 예산 배정이 확정되었으나 문화재청 소관인 부인사지 축대보수와 파계사 진동루 해체보수, 용연사 석조계단 정비사업은 아직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로 드러나 대구불교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박원구기자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청소년 발대식이 8일 동의대 강당에서 열렸다.

“남 아끼는 마음 배우겠습니다”

‘맑고향기롭게’ 청소년봉사단 발대식

“내 고장의 어려운 곳을 찾아 나 보다는 남을 아끼는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8일 동의대 자연대 강당에서 열린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본부장 박수관)의 청소년 봉사단 발대식은 자원봉사를 다짐하는 청소년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이날 발대식을 가진 부산지역 중·고등학생 200명은

11일까지 부산 전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방학을 보냈다. 이 밖에도 청소년들은 경로의식 고취를 위한 애광양로원, 부산시립노인건강센터 봉사활동과 민주시민의식과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민주공원, 시립박물관 복원분관에서의 문화체험 등 주별 봉사활동과 체험에 참여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천미희기자

부산불교신도회·동화사

신년하례법회 봉행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는 6일 부산 코모도호텔 중무홀에서 불기 2547년 부산불교계인사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사진 위>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스님,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을 비롯한 4백 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신년하례에는 식전행사인 부산영산재 시연에 이어 김창석 부산불교신도회 상임부회장의 발원문,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의 신년인사, 도원 삼광사 주지 스님의 신년축사, 성오스님의 신년법어 순으로 이어졌다.

대구 동화사(주지 지성스님)는 6일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불기 2547년 불교지도자 신년 하례법회를 갖고 새해 지역불교계의 발전을 기원했다. <사진 아래> 이날 법회는 대구불교방송 사장 성타스님, 조해녕 대구시장, 장영관 대구시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